

제1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축하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3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저는 '자율관리어업'을 내걸고 전국을 누비며 어업인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삶의 터전인 바다를 되살리는 길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다를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어업인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다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전국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인 여러분은 수산업의 미래를 열어 가는 선구자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길은 없다고 낙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찾는 자에게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습니다. 뛰어난 품질과 한발 앞선 서비스로 당당하게 세계와 경쟁합시다.

어업·어촌 문제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살맛나는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자율관리어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수

공동체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애써 주신 관계자, 어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